

‘문학들 시집선’ 발행 시작...1번에 이대흠 시인

CULTURE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지역 간판 출판사 중 한 곳인 문학들이 시집선을 시작했다. 첫번째 타자로 이대흠 시인을 선정해 시집을 선보였다. ‘문학들 시집선 1’번으로 나온 이대흠 시집 ‘동그라미’는 기존에 절판된 시집 가운데 주목할 만한 시집으로 다시 펴내는 복간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시집은 시인의 제2시집 ‘상처가 나를 살린다’ (2001)와 제3시집 ‘물속의 불’ (2007)에서 골라 엮었다.

이번 시집의 표제작 ‘동그라미’는 그의 시 중 교과서를 통해 널리 알려진 시이다. 첫 시집의 제목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라는 구절은 양자적이다. 여성성(눈물)과 남성성(고래)이 혼재한다. 이번 시집을 읽고 나면 이 제목이 왜 더욱 필연적으로 읽히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

특히 5·18민중항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20여년 전 절판돼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하던 중 문학들의 제안으로 출간돼 의미가 깊다는 게 이 시인의 설명이다.

이번 시집은 첫 시집 이후 제3시집에 이르는 그의 시적 경향을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언어를 조탁하고 압축해 노래에 이르게 하는 서정시의 묘미가 먼저 돋보인다. ‘르’를 활용해 강물과 아버지와 전라도 곧 자연과 인간과 삶의 터전을 하나의 가락으로 노래한 ‘남도’, 북소리와 춤을 통해 흥과 멈춤 곧 삶의 절정의 순간이나 지점을 노래한 ‘춤꾼 이씨’ 등이 그렇다.

제2·3시집작품 엄선 ‘동그라미’ 출간

현실의 시적 대응력...서정시 묘미 탐색

‘강물이 리울리를 흘러가네/ 술 취한 아버지 걸음처럼/ 흥얼거리는 옥자배기 그 가락처럼’

‘남도’ 이라거나 ‘아라리가 났네 하네/아라리 뉘쫓지 말고/먼 천 아라리가 나부러사씨//귀로 듣는 아라리에 몸 맞추지 말고/이녁 몸속 아라리가/막 터져 나오는 것이제’ (‘춤꾼 이씨’)라고 노래한다.

다른 하나는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1980년 광주 ‘오월’의 아픔 곧 현실(역사)에 대한 시의 대응력을 탐색하는 시들이 눈에 띈다. ‘물속의 불’ 장시와 ‘지나 공주’ 연작이 그것이다. 이들 시편은 신화적 상상력과 어머니(누이)로 표현되는 모성(여성성)의 프리즘으로 현실 세계의 모순을 해석하려는 다소 실험적인 시도로 읽힌다. 이번 시집에서는 읽기 편하게 제목을 달고 분리해 제2부와 제3부에 실었다.



시집 ‘동그라미’

이대흠 시인

‘춤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폭도를 죽이는 소리/ 춤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간첩을 잡는 소리’ (‘나는 야 혁명군 새 나라 건설의 전사 - 위대한 탄생 4’) 라거나 ‘이제 보니 간첩이라는 말은/적이 보내 내정을 염탐하는 자가 아니구나/민중들의 가슴에/수신기 대고 청진기 대고/상처를 도청하는 자로구나’ (‘이제 보니 - 붉은 심장을 가진 나무 6’), ‘시

체들은 썩어가고/파리 떴다//춤을 추던 나는 사금파리 밟았네/사각사각 나를 먹어 대는 사금파리/천천히 나를 먹는/나의 창녀 지나 공주’ (‘소풍-지나 공주 1’)라고 읊는다.

제1부와 제4부에는 “언어를 최소화하려 고민하고 썼던 시”, “말을 줄이고 음악만 남은 시”들이 실려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인은 머리말을 통해 “나는 그 무렵 시라고 믿었던 것에서 벗어난 시를 찾고 있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제주 무가’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신화에 기댄 바가 적지 않고, 수메르, 인도, 북유럽의 신화 등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 읽었다. 시어의 확장을 꿈꿨다. 반면에 1부와 4부의 시들은 언어를 최소화하려 고민하고 썼던 시들이다. 말을 줄이고 음악만 남은 시를 쓸 수는 없을까? 그 문제를 오래 고민했다. 말하지 않는 시, 듣는 시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대흠 시인은 1994년 ‘창작과비평’에 ‘제암산을 본다’ 등 7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첫 시집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를 통해 우리 시단에서 보기 드문 남성적 톤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전라도 입말의 특징, 남도만의 유장한 가락을 살린 빼어난 서정시로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았다. 육사시문학상과 현대시동인상, 예지문학상, 조태일문학상, 천상병문학상 등 다수 수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비발디 글로리아’ 감동의 하모니 시립소년합창단. 28일 광주시청

광주시립소년합창단이 제144회 정기연주회 ‘비발디 글로리아’를 오는 28일 오후 6시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선보인다.

일반 공연장에서 진행되던 기존의 공연을 벗어나 더욱 많은 시민과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 열린 공간에서 감동의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합창음악의 정수를 할 수 있는 비발디의 ‘Gloria’를 바로크 음악 전문 연주단체 콜레기움 무지클 서울과 협연한다.

또 광주시립합창단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웅장하지만 간결한 바로크 선율과 아름다운 발레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시각과 청각 모두 감동을 주는 특별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고의 작·편곡자들이 새롭게 해석한 한국 가곡과 동요도 함께 선보인다.

관기원 광주시립소년합창단 상임지휘자는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한 특별한 공연”이라며 “시민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음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감동을 만끽하고, 우리 삶 가까이 숨 쉬는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주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시립소년합창단 제144회 정기공연 ‘비발디 글로리아’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광주시립합창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46.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마림바 울림으로 클래식 명곡 마주하다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 내달 16일 광주에 당 퍼커셔니스트 한문경 협연...‘마림바 협주곡’ 등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대표 기획연주회 ‘오티움 콘서트’의 첫 무대가 오는 4월 16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 오티움 콘서트의 주제는 ‘악기’로, 마림바, 더블베이스 등 흔히 접할 수 없어 낯설지만 깊은 매력을 지닌 악기들에 집중한다. 첫 무대를 장식할 악기는 ‘마림바’다. 마림바는 타악기 계열의 악기로, 나무로 만든 음판을 말렛(mallet)으로 두드려 소리를 낸다. 실로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음판 아래에 금속 관(공명관)이 달려 있어 더 깊고 따뜻한 울림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오티움 콘서트’ 첫 무대가 4월 16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마림바를 주제로 한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지휘자 김영연의 지휘와 해설, 퍼커셔니스트 한문경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악기를 깊이 있게 소개하고 관객들에게 음악적 탐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협연자 한문경이 마림바 악기의 깊고 풍부한 소리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이며, 악기의 특별한 매력을 음악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한문경은 뉴욕타임스에서 마림바의 음색을 ‘아름답고 담백하게 채색하는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았다.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쳐 줄리어드

음악원 학사, 파리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 텍사스 줄리어드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날 공연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주요 멜로디를 엮은 ‘카르멘 모음곡’(G. Bizet, Carmen Suite No. 1)으로 화려하게 문을 연다. 대담하고 열정적인 선율이 관객들을 생동감 넘치는 음악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어 주목할 무대로 덴마크 작곡가 코펠의 ‘마림바 협주곡 제1번’(A. Koppel, Marimba Concerto No. 1)이 연주된다.

마림바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협주곡으로 퍼커셔니스트 한문경이 광주시향과 한무대에 올라 무대를 꾸민다. 마림바의 풍부한 음색을 오케스트라와 조화롭게 풀어내며, 악기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세 번째로 선보일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J. Sibelius, Valse Triste op.44)는 고독을 아름답게 풀어낸 작품으로 마림바와 오케스트라가 상호작용을 하며 관객들에게 한층 더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이날 마지막 무대는 립스카-코르사코프의 편곡으로 선보일 무소르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M. Mussorgsky, Night on Bald Mountain)이다. 타악기의 박진감과 마림바의 독특한 음색으로 환상적인 풍경을 묘사한다. 오케스트라의 역동적인 연주와 함께 마림바와 타악기의 신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하면 된다. 입장료는 S석 2만원, A석 1만원.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반려동물 모티브...위안 주는 벗이자 가족

박정일 기획초대전 드영미술관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박정일 기획초대전 시를 20일부터 6월 4일까지 드영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Family’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출품작은 평면 회화 19점.

이번 전시는 지역 신진작가 발굴과 예술가의 창작지원,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드영미술관의 개관 취지를 잘 보여준다는 후문이다.

반려동물을 모티브로 작업하고 있는 박 작가는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이 아파로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에 주목했다. 지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오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반려동물은 위안을 주는 벗이자 가족인 것이다.

특히 작가의 애정과 유머가 더해져 표현된 상자 속의 옹기옹기 고양이, 의인화돼 표현된 반려동물의 즐거운 여름 휴가와 겨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모습, 결혼식 장면 등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또한 세밀 클로버를 입에 물고 행복함에 충만한 반려동물의 모습은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Family16’

우리가 잊고 지냈던 아름다운 순간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의 작품은 단순한 동물화나 감성적인 표현을 넘어,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가 그 날 지나치거나 잊고 있었던 행복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통해 따뜻하게 풀어내고자 했다”면서 “개가 주인의 손길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현하는 모습,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 햇살을 즐기며 평온한 표정을 짓는 순간, 그리고 서로 장난치거나 기대어 쉬는 장면들까지 모든 장면 속에는 자칫만 소중한 행복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비슷한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지역 대학생이 기획·제작한 문화 상품 ‘눈길’

ACC재단, 전남대·조선대·광주대 협업 상품 3종 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사장 김선옥)은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협업으로 제작한 개성 넘치는 문화상품 3종을 최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들은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학생들이 전문디자이너와 함께 약 1년간 기획하고 제작한 결과물이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미래 청년 디자이너를 육성하고 새로운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ACC 대학생 상품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당재단과 전문 디자이너, 지역 대학생이 함께 참여해 엠제트(MZ) 세대를 겨냥한 창의적인 상품을 기획하는 교육형 프로그램이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대학생들은 전문 디자이너와 협업하고 자문을 받아가며 각자의 특성을 담은 독창적인 상품을 만들었다. 작품은 전남대학교 ‘포레스트 오브 그릿’(사진 카드 등), 조선대학교 ‘감성 기록 다이어리’, 광주대학교 ‘감정에 깃든 시간’(달력) 등으로, ‘포레스트 오브 그릿’은 전당 안에 숨어있는 공간의 이야기를 담은 상품이며, ‘감성 기록 다이어리’는 관람객들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관람한 뒤 느낀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는 노트다. ‘감정에 깃든 시간’은 ‘성장’을 주제로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이트모양의 달력이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협업으로 제작한 개성 넘치는 문화상품 3종을 출시했다.

GD, 아시아 7개국 8개 도시 월드투어 ‘위버맨슈’ 5월 10~11일...도쿄돔 등

가수 지드래곤(GD)이 오는 5월 10~11일 일본 도쿄돔을 시작으로 아시아 7개국 8개 도시를 찾은 월드투어 ‘위버맨슈’(Übermensch)를 진행한다. 지드래곤은 일본 도쿄돔 콘서트 이후 필리핀 불라칸, 일본 오사카, 마카오, 대만 타이베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콩을 찾는다.

이번 투어 일정에는 도쿄돔, 오사카 교세라돔, 필리핀 아레나 등 대형 공연장이 포함됐다.

지드래곤이 도쿄돔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2017년 솔로 월드투어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월드투어는 그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과 미국 대형 공연 기획사 AEG 프레젠템(AEG Presents)가 주관한다.

지드래곤은 오는 29~3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국내 팬들을 만난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정규 3집 ‘위버맨슈’를 발매, 타이틀곡 ‘투 배드’(TOO BAD)로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위버맨슈’는 지드래곤이 니체의 ‘초인’을 콘셉트로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이다. 연합뉴스